

“부처님 손에 담긴 미학적 가치 모색”

관조스님 사진전 봉은사 미륵전서

관조스님 문도회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6월 6일까지 봉은사 미륵전과 미륵대불 등지에서 ‘부처님의 손’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시는 사진작가 관조스님(1943~2006)의 유작 중 20점을 선정 불교문화에 담긴 아름다움을 전달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관조스님은 사진예술을 통해 부처님의 진리를 전파하고자 노력했던 사진작가다. 그는 생전에 <승가> <한줄기 빛> <사찰꽃살문> <님의 풍경> <사천왕> 등 20여권의 사진집을 출간해 불교문화를 알렸다. 이중 <사찰꽃살문>은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한국의 아름다운 책 100선’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관조스님 문도회는 “부처님의 손에 담긴 미학적 가치를 지관 스님의 법어와 시인들의 글을 통해 재해석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불교문화에 담긴 의미를 새롭게 느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행사의 의미를 전했다.

이번 전시에는 경주 굴불사지 석조사면불 약사여래좌상을 비롯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강릉 신복사지 석조보살좌상 등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불보살의 수인을 촬영한 작품 20점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인다.

보인다. 특히 이번에 전시되는 사진작품에는 시인 안도현 이근배 정현종 등 우리나라 대표 시인 19명의 시가 덧붙여져 작품의 현대적 재해석을 시도했다. 여기에는故지관 스님의 법어를 덧붙인 작품도 있어 눈길을 끈다.

관조스님 문도회는 “이번 전시에서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에 걸친 우리나라 불교 수인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

화엄세계 표현한 부처님 수인에
지관스님 법어·안도현 시 새긴
이색 전시로 관객들 찾아가
6월 6일까지 작품 20점 전시

이다. 또한 관조스님이 추구했던 ‘사소하고 작은 것을 통해 전체를 보고자 한 화엄세계(一微塵中舍十方)’ 정신도 전하고자 했다”며 “여기에 현대 시인들의 화두와 같은 시를 작품에 붙임으로써 관람객들의 창조성을 자극하는 이색 전시가 될 것”이라며 전시 내용을 설명했다.



관조 스님의 경주 굴불사지 석조사면불 약사여래좌상. 관조 스님 문도회는 6월 6일까지 ‘부처님의 손’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법어와 시구를 넣어 이색 전시를 펼친다.

봉은사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봉은사에서 진행되는 야외전시다. 일반적인 실내 전시와는 달리 미륵대불을 둘러싼 넓은 야외공간 자연광 아래 커다란 스케일의 사진 작품들을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도시민들이 찾아와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문도회는 전시 작품 20점과 관조스님 행장, 불상수인 해설원고 등을 덧붙여 50페이지 분량의 도록을 발간한다. 각각의 사진작품들은 다양한 규격의 소장용 액자로 판매한다. (02)3218-4831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호국 선열 넋 기리며 10년”

능화 스님 6월 6일 현충재 개최

“제(祭)는 유교식으로 제사를 올리는 것을 말하지만, 재(齋)는 불교적 의식으로 공양을 차별 없이 올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각종 제사음식은 물론 범패음악의 장중하고 멋스러운과 작법무의 단아하고 정갈한 모습에 정성된 마음까지 공양하는 것이 현충제입니다”



범패와 작법무보존회원들과
현충담서 사방법고춤 선보여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범패와작법무예능보유자 능화 스님(사진)이 인천 수봉산 현충탑광장에서 현충재를 펼친다. 지난 2002년부터 10여년 동안 현충재를 지내온 능화 스님은 불교의 전통문화를 통해 순국 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려 왔다.

“10여년전 현충일에 비가 내렸습디다. 그날 현충탑을 방문했다가 재단에 흰 국화 몇 송이가 비에 젖어 있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범패와작법무보존회 회원들과 간단하게나마 예를 갖추고 범패와 작법무의식을 올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부터 회원들과 의논해 짜임새를 갖추고 현충재라는 이름을 붙여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후 범패와작법무보존회는 매년 현충제 의식을 거행해 왔다. 무형문화재 전승발표를 겸하기 때문에 대형 규모의 행사로 진행되는 현충제는 범패와작법무보존회 회원 전원이 참여한다. 또한 정아미 국악연주단과 정도사 합창단, 피안사회복지관, 남구불교연합회,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이 함께한다.

능화 스님은 “잊혀진 영혼까지도 아니 잊을 수 없는 분들이기에 열정을 다할 것”이라며 다짐을 전했다. 한편, 스님은 올해 안에 지난 10간의 현충재를 기념하는 책자도 발간할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부처님오신날 특집 방송... 다큐·음악회 등 ‘풍성’

불교TV, SBS, MBC 등 각 방송사에서는 5월 28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불교TV는 다큐멘터리를 비롯해 특별대담, 봉축음악회 등 11개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5월 27~28일 오후 2시 30분 2부작으로 연이어 방송되는 ‘JTS-정도를 일구다’는 평화재단 이사장 범문 스님과 JTS 자원봉사자들이 국제구호활동을 펼치는 모습을 담았다.

1부는 JTS가 캄보디아 오지인 라타나끼리 지역에 5개 학교를 개교하고, 그 현장을 방문하는 장면을 방송한다. 개교식에 참석한 학생들이 교복과 학용품 받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통해 진정한 감동을 선사한다.

2부는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을 방문해 종교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무엇인지 조명한다. 민다나오는 스페인의 식민지 정책으로 무슬림과 원주민들이 소외받고 있는 지역. JTS는 인종, 종교, 성별, 사상과 이념에 관계없이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것이 종교가 궁극적으로 나아가

야 할 방향임을 강조한다.

또 5월 26일(오후 7시 30분), 27일(오전 9시 30분), 28일(오후 9시), 30일(오전 11시 30분)에 각각 방송되는 ‘청년해초, 길에서 길을 묻다’는 동국대 해초원정대 탐사를 담은 다큐멘터리다. 해초 스님이 걸었던 4000Km 대장정을 동국대 학생 20여 명이 직접 걸으며 종교 갈등과 이데올로기에

불교 TV - 정도를 일구다
SBS TV - 공양간 수고롭구나

과파된 유적과 지역민들을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담았다.

이밖에 불교TV는 >5월 26일 조계종 중정 진제 스님과 불교TV회장 성우 스님의 특별대담(오전 8시 30분) >5월 27일 1600년 한국불교의 기록 마애불(오후 9시) >5월 25일 선율위에 담은 부처님의 진리(오전 11시 30분) >5월 25일 ‘불심으로 살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각 방송사에서는 다큐·대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사진은 5월 27~28일 부처님오신날 특집으로 방송되는 불교TV ‘JTS-정도를 일구다’ 장면

리다’ 이매영 남북문화교류협회 이사장(오전 9시 30분) >5월 27일 2012. 비핵화 평화대회(오후 5시 30분) >5월 28일 ‘천년의 꿈이 이뤄지다’ 낙산사 정명 스님과 그의 대화(오전 7시 30분) >5월 25일 보령행원 송(오후 4시 30분) 등이 방송된다.

SBS는 5월 28일 특집다큐 ‘공양간 수고롭구나’를 오전 10시 30분에 방송한다. 프로그램은 사찰 공양간의 모습을 통해 스님

들의 수행 의미를 알아본다. 또 현대인의 멘토로 떠오르는 평화재단 이사장 범문 스님이 예능프로 ‘힐링캠프’에 출연해 그동안 펼쳐온 대북지원, 환경, 사회, 청춘콘서트 등 활동에 대해 스님의 생각을 진솔하게 밝힐 예정이다. 이밖에 MBC는 5월 28일 오전 10시 55분 ‘롬바니에 세운 순례자의 꿈(가제)’을 특집 방송한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불교미술 대중화 꾀한다” ‘설명이 있는...’ 갤러리 M서



박서영 작가 출품작

5월 23~31일 종로구 낙원동 갤러리 M에서 열린다.

홍보를 맡은 김민지 씨는 “대중들은 대부분 불화가 어렵다고 얘기한다. 우리의 모임 명칭인 ‘부디스토리(Buddhistory)’는 부처님을 그리는 사람들이란 뜻이다. 대중들에게 부처님 그림을 좀더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에는 김민지 예상의 박서영 송자민 김혜민 유정현 오선혜 신지영 이혜원 등 전통회화 및 불교회화를 전공한 젊은 작가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특별 참여로 권나연, 이준석 어린이들의 부처님을 그림도 전시된다.

(010)4425-4486 정혜숙 기자

불화작가 권지은 ‘春行’ 5월 29일까지 화봉갤러리서



지장 삼존도

불화작가 권지은의 개인전 ‘춘행(春行)’이 5월23~29일 화봉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비단에 전통 천연염색을 한 후 배채(背彩)기법으로 작업한 ‘천수천안심일면관음보살’ ‘석가모니불’ ‘문수보살도’ ‘보현보살도’의 전통불화 재현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선재동자, 보현보살에게 길을 묻다’ 등의 창작전통불화는 물론 ‘Illusion I’ ‘Illusion II’ 등의 현대적인 작품도 선보인다.

작가는 “전시제목 춘행(春行)은 소소한 봄나들이일 수도 불교적 의미로는 실천과 수행의 방편으로서의 불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번 전시를 통해 부처님의 가피와 전통회화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010)7199-9760 정혜숙 기자

佛紀 2556年 壬辰年 Buddha's birthday
‘마음이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맘 울리는 불계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임시다!
사찰등록!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탁 혜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남·여 행자(에비스님)모집